

광주매일신문 제8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2강 '고전에서 배우는 위기극복의 지혜' 박재희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장

'속성된 삶의 지혜' 고전에서 길을 찾다

현대 경쟁력은 사람에 대한 질문인 '인문학' 위기 극복 해답 '궁즉통'·'허즉통'·'변즉통'

"인생에 있어 크든 작든 누구든 위기를 겪게 돼있습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잘 극복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고전(古典)을 공부해야 합니다."

광주매일신문 주최로 지난 5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열린 제8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제12강에서 박재희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장이 '고전에서 배우는 위기극복의 지혜'를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이날 박 원장은 비단 주머니 속의 계획 즉 '제때에 긴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뜻하는 '금낭묘계(錦囊妙計)'를 설명하며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평생 공부한 동양고전을 통해 금낭묘계 3가지를 전달해주겠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고전은 2천500년간 속성된 삶의 지혜이자 오래된 미래"라며 "인문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문양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고민하는 꼭 필요한 학문이다"고 거듭 인문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어 중국의 대표 사상가인 공자, 노자, 손자의 일대기를 통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책 세 가지를 제시했다.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으로 박 원장은 힘든 삶 속에서 자수성가한 공자의 인생사를 들여다보며 '위기가 내 안의 가능성을 촉발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을 가진 '궁즉통(窮則通)'을 꼽았다.

두 번째 방안으로 '성공할 때 내려놓아라'는 뜻을 가진 '허즉통(虛則通)'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노자의 핵심사상인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설명하며 "간섭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을 때 저절로 될 것이다"며 비움의 미덕을 거듭 피력했다.

마지막 위기 극복의 세 번째 방안으로 박 원장은 손자의 일대기를 이야기하며 "어려울 때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승부하라"는 뜻인 '변즉통(變則通)'을 제시했다.

더불어 성공 전략의 3대 공략 포인트로 '시간', '공간', '속도'를 말하며 전략적 대가인 한국의 위인 이순신 장군을 예로 들어 '변즉통'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끝으로 박 원장은 앞서 설명한 위기 극복 세 가지 대책인 '궁즉통', '허즉통', '변즉통'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세 가지 대책을 일상에 적용해 창조클럽 원우들이 위기를 현명하게 잘 극복하길 바라겠다"며 강의를 끝맺었다.



또 그는 노자의 사상과 학문에 대해 이야기하며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으로

박재희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장은 "고전에서 배우는 위기극복의 지혜"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박 원장은 비단 주머니 속의 계획 즉 '제때에 긴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뜻하는 '금낭묘계(錦囊妙計)'를 설명하며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평생 공부한 동양고전을 통해 금낭묘계 3가지를 전달해주겠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고전은 2천500년간 속성된 삶의 지혜이자 오래된 미래"라며 "인문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문양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고민하는 꼭 필요한 학문이다"고 거듭 인문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어 중국의 대표 사상가인 공자, 노자, 손자의 일대기를 통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책 세 가지를 제시했다.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으로 박 원장은 힘든 삶 속에서 자수성가한 공자의 인생사를 들여다보며 '위기가 내 안의 가능성을 촉발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을 가진 '궁즉통(窮則通)'을 꼽았다.

학교법인 호심학원 노진영 이사장 취임



학교법인 호심학원은 6일 "제4대 노진영(79) 이사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노진영 신임 이사장은 1942년 광주 출생으로 성균관대 법정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목포대·초당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 세계박람회지방자치위원장, 전남도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장,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과 전남도사회복지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노진영 이사장은 "앞으로 우리 대학이 4차산업혁명 시대 교육혁신을 이끌어가며, 지역 상생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대 수의대 동문 1억2천500만원 기부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문들이 전남대 동물의료센터 구축사업에 써달라며 모두 1억2천500만원을 기부했다.

전남대 강종일 동문은 지난 1989년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 강남에 충청동물종합병원을 개원해 30여년을 운영하면서 전국에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 5천만원을 기부했다.

또 전남대 수의과대학동창회 회원 70여명도 7천500만원을 모아 기부했다. 회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대학 출신 수의사들과 동문들이 동물의료센터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우리지역에 큰 영향을 주는 동물의료센터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동강대, 창업동아리 역량강화 캠프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미래 창업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을 키워주며 창업역량을 높였다.

동강대 창업교육센터(센터장 박경우)는 최근 남원스위트호텔에서 '2021 창업동아리 창업역량강화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는 ▲방사선과(DGXS) ▲보건의료관리과(왕밤빵) ▲임상병리과(미생) ▲유아교육과(팅커벨) ▲호텔관광과(S.I.T) ▲응급구조과(휴-MBT) 등 지난 5월 선별한 창업동아리가 참여해 다양한 실천 창업 과정을 익혔다.

인사

광주 서구 ◇5급 승진외결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용규 ▲주택과장 직무대리 환경현
◇6급 전보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조선대

▲교육혁신원 부원장 조규만 ▲공과대학장 겸 산업기술창업대학원장 김대현 ▲공과대학부학장 겸 공학교육혁신센터 부센터장 고필주

본사 손님

▲매주목지연구소 원만수 원장 ▲정미경 경영지원팀장

결혼

●박문철·김정희씨 장남 희환군, 김순경·이명희씨 장녀 인아양=10일(일) 낮 12시 롯데호텔 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 서울시 중구 을지로(소공동) 30, 010-3572-6806.
●김용주(광주시체육회 생활체육위원장·서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김옥주씨 아들 한철군, 이용기·홍영란씨 딸 해숙양=9일(토) 낮 12시 부산수영구 광안해변로 호텔 아쿠아펠리스 3층.
●최중국·정순영(전 광주 북구의원)씨 아들 영철군, 이한선·임정희씨 딸 지혜양=10일(일) 오후 1시30분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드메르웨딩홀 4층 라비뉴홀.



목송산업개발,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재선정

종합주택관리 전문업체인 목송산업개발(주)이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으로 재선정됐다.

광주지방보훈청은 제10회 제대군인주간을 맞아 지난 5일 목송산업개발(광주 서구 소재)에서 임종배 광주지방보훈청장과 이명식 목송산업개발 대표이사, 김상희 사장, 김정희 제대군인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2019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업체로 재인증받은 목송산업개발은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에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로 창립 32주년을 맞은 목송산업개발은 주

택관리 경비·미화 근로자 파견, 소독업 등 고객감동의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업체로, 승강기 제조 및 설치공사, 유지보수, 감리, 소방시설 관리·공사,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도장, 방수공사, 전산프로그램 용역 등 6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유일의 종합주택관리 회사로 지금까지 70여명의 제대군인을 고용했고 현재는 2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명식 대표이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우수인력으로 기업 운영에 있어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대 군인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전국체전 출전 선수 격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지난 5일 체육계열 특수목적고인 전남체육고와 함평골프고를 방문해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강조했다.

전남체육고는 8일부터 14일까지 경북 일원에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 14개 종목 82명이 출전해 금 15, 은 10, 동 17개 획득을 목표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룬다.

장 교육감은 전남체고에서 "이번 대회는 성적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로부터 학생선수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한 방역과 감염예방

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자전거종목 종합우승(금2, 은2, 동1)을 차지한 전남체육중 최연경(3년), 송유진(3년), 강소는(2년), 박영서(2년), 황선미(2년) 학생에게 축하와 격려금도 전달했다.

장 교육감은 이어 함평골프고를 방문해 선배들의 업적을 빛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102명의 학생들을 격려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함평관내 초등학교 방과후시간에 함평골프고연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함평골프고가 지역사회의 함께하며 함평의 자랑거리로 우뚝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소 프렌즈봉사단, 김치 나눔 행사

광양제철소 프렌즈봉사단(단장 최창복)이 지난 5일 직접 담근 김치를 제철소 인근 이웃들에 전달,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프렌즈봉사단은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광양 가야라이온스 회원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김치 담그기 행사를 실시했다.

지난 2일 진행된 김치 담그기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김치는 5일 광양시 중앙장애인복지관에서 나눔행사를 통해 중앙장애인복지관, 광양시장장애인복지관, 광양시다문화가정센터 등에 전달됐다.

김희준 광양시 가야라이온스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 유달동행정센터, 외달도 바다환경 정화활동

목포시유달동행정복지센터가 외달도 바다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정화활동에는 자생조직, 주민,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협의회 등이 동참했다.

정화활동은 문학박람회, 문화재 야행 등 목포시가 역점 준비 중인 행사들이 치러지는 10월을 맞아 쾌적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봉사자들은 최근 반복된 호우와 강풍으로 유입된 해양쓰레기와 해초더미, 조개껍데기 등 80kg 마다 50개 분량을 수거했다.

송현 유달동장은 "목포의 자산인 섬을 아름답게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자생조직, 주민, 여러 단체와 함께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와이즈맨 목포비파클럽, 전기 안전점검 봉사

국제와이즈맨 목포비파클럽(회장 김광길)이 최근 목포시 연동에서 독거 어르신 6세대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점검 등 봉사활동을 펼쳐 귀감이 되고 있다.

목포비파클럽은 전문 기술자 10여명과 함께 낡고 오래된 전선 교체·정리, 배전반 등 전기시설 점검, LED등 교체 등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목포비파클럽은 추석에도 연동 취약계층을 위해 백미, 라면, 화장지 등 200만원 상당을 후원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김광길 회장은 "어르신이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꾸준히 봉사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순 연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앞장서 나눔을 실천하는 목포비파클럽에 감사드린다"며 "연동 어르신들의 행복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금님 담양 의용소방대원 '강의 경연' 최우수상

담양소방서는 6일 "최근 장흥군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남 의용소방대 강의 경연대회 생활안전 분야에서 이금님 대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 강사 경연대회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도민 눈높이에 맞춰 보다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의 강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회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금님 대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증가한 캠핑장 내 안전수칙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오는 11월 비대면 평가를 통해 전국 의용소방대 경연대회에 전남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박상대 담양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책임이 화재, 구조, 구급 현장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확대되고 있는 만큼 도민 안전의식 향상에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